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주초 인선·주말 첫 회의”

청 “햇라인 구축 아직”...집무실서 통화토록 설치 “북, 핵·미사일 포기한다면 북미수교 예정된 수순”

청와대는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인선을 이번 주 초반에 마무리지은 뒤 주말에 첫 회의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략 이렇게 해보자는 초안은 나온 상태로, 주초에 인선작업을 하고 주말쯤 첫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간 합의한 정상간 햇라인 구축과 관련, 이 관계자는 “아직 구축작업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우리가 결정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북한과 실무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협의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햇라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집무실에서 직접 통화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방

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박2일 일정으로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으며, 이날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방북 및 방미 결과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곧바로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해 러시아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면담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 대선이 18일이어서 푸틴 대통령을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전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남관표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이날 낮 일본 도쿄를 방문해 당국자들과 면담한 뒤 13일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앞서 정 실장과 서 원장은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전날 청와대로 곧장 향

해 1시간 15분 동안 대통령에게 방미 성과를 보고했다.

김 위원장이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통해 미국에 북미수교 의사를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알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미국과의 정상적인 관계회복 즉 수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정된 수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는 것과 관련,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초안을) 그대로 제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홍식 금융감독원장의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당시의 채용정책 논란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관련 수석실에서 살펴보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개특위 전체회의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형태(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분권) 및 지방분권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민 위해 심사숙고”

김영록, 전남지사 출마할 듯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6·13지방선거 전남지사 후보경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12일 이개호 의원의 전남지사 불출마 선언과 관련, “전

남도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국무위원으로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의원이 보여 준 선당후사 정신에 입각해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8·19대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으로 활동한 바 있다.

“14~15일 전남지사 출마선언”

신정훈 “전략공천 없을 것...경선준비”

신정훈 청와대 농업비서관이 오는 14~15일께 6·13지방선거 전남지사 선거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신정훈 비서관은 12일 “청와대에 제출한 사직서가 늦어도 13일 수리

될 것으로 안다”며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신 비서관은 지난 9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전남지사 선거 출마선



언은 14일이나 15일쯤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신 비서관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남지사 전략공천설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윤 기자

“한반도 운명 앞으로 두 달에 달렸다”

문 대통령, 수석회의서 언급...“소중한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이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열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우리의 역량을 주목하고 있고,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 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다”며 “정권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될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전쟁이 아닌 평화로, 군사적 해법 아닌 외교적 해법을 전 세계가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려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가 성공하지 못한 대전환의 길이며, 그래서 결과도 낙관하기가 어렵고 과정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레이다



D-92

이용섭 “고 안병하 치안감 추서 정의 귀결”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2일 ‘경찰영웅’ 고 안병하 경무관에 대한 치안감 추서를 적극 환영하고, 고인의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 안 치안감은 전남경찰국장 재직시절인 5·18당시 신군부의 무기 사용 명령을 거부했다”며 “이후 신군부 지시

불복을 이유로 갖은 고문을 받고 후유증으로 1988년 순직했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는 시민생명을 개인의安危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찰 본분의 살아 있는 실천이었다”면서 “광주시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자신을 버렸던 고인은 ‘경찰의 영웅’이자 ‘광주시민의 영웅’이다”고 덧붙였다.

양향자, 광주시장 출마...“새 방식 선거승리”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12일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성공의 디딤돌이다”며 “광주에 경제DNA, 도전DNA, 혁신DNA를 심겠다”고 말했다. 그는 “낡은 기득권 세력이 광주를 멈춰 세우고 광주를 뒤쳐지

게 만들었다”며 “광주가 바뀌려면 새로운 산업과 유망기업을 유지해야 한다. 완전히 다른 내용과 새로운 방식으로 선거를 이끌고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장 당원명부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당사자들이 해명하고 책임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분란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동구청장, 북콘서트 개최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은 12일 오후 7시 KT 빌딩 대강당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김 청장은 북 콘서트는 자신의 저서인 ‘정책으로 승부하는 지방자치’를 소개하며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1부는 국무총리실 등 26년간 직업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경제·사회·문화를 비롯해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책과 제도를 다루며 느낀 정책별 단상을 정리했다. 2부는 기초단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접 민생현장을 뚫고 누비며 체득한 경험을 담담한 필치로 그려 냈다. 지난 7일 민주평화당 입당을 선언한 김 청장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통령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조성철, 남구청장 출마...“소통 리더십”



조성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은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남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 예비후보는 “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에 대해 누구보다 고민하고 공부해온 준비된 후보”라고 자신을 내세웠다. 조 예비후보는 “남구는 구시가지와 신흥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사실상 베드타운으로 전락했고 자족기능과 경제적 활력도 너무나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조 예비후보는 “민원이나 지역사회갈등이 생기면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겠다”며 “주민 편에서 서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철 기자

권세도, ‘대화가 먼저다’ 북 콘서트



권세도 여수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지난 11일 여수시민회관에서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화가 먼저다’를 주제로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권 예비후보는 북 콘서트에서 경찰의 다양한 업무 속에 시민단체대표와 예술인들과의 교류를 이어 갔던 이야기, 주먹은행과 국민은행 합병당시 대화

로 물리적 충돌을 막은 이야기를 풀어냈다. 권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와 여수는 수많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내가 꿈꾸는 세상, 꿈꾸는 여수는 ‘대화가 먼저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다’가 실현된 세상이다”며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미래세대에 물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여수=곽재영 기자

김종식, 목포시장 출마...“새 목포시대”



김종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목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부시장은 12일 목포종합수산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미래도약을 위한 먹거리 확보와 목포의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 지방선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서남권 경제통합 실현, 역동적인 경제도시 만들기, 힐링 관광도시 조성, 원도심 명소 만들기, 따뜻한 목포공동체, 교육도시 목포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놨다. 김 전 부시장은 신안 부근 수, 영암 부근수, 목포 부시장, 민선 3~5기 완도군수 등을 역임했다. /목포=강성우 기자

강인규 나주시장, 출판기념회 인산인해



강인규 나주시장이 지난 11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재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나주 스포츠테마파크내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는 김진표·이개호·이종걸·손금주 의원, 신정훈 청와대 농업비서관, 김홍철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대표, 나

주지역시·도의원 및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나주에서 나고 자라며 겪어왔던 이야기들과 민선 6기를 거치면서 나주의 성장과 미래 비전에 대한 생각을 한 권의 책을 통해 나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나주=신종기 기자

최형식 담양군수, 출판기념회 성황



최형식 담양군수의 저서 ‘나의 삶 나의 길’ 출판기념회가 지난 10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이종걸 의원, 신정훈 청와대 농업비서관, 김성 장흥군수, 국창근 전 의원, 담양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축하영상을,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는 해외에서 영상메시지를 전하와 눈길을 끌었다. 최 군수는 “담양 발전을 위한 소신과 신념, 희망 속에 일에만 매진해 지금의 담양을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담양의 지도’를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장동원 기자

최영태, 시교육감 출마...“최적의 교육도시”



최영태 전남대교수(사학과)는 12일 “광주를 최적의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며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교수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년간 광주교육은 변화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최적의 교육도시 조성

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졸업고 신명나는 학교 만들기 ▲학생들의 학력신장 ▲교사 자긍심 회복을 통한 공교육 부활 ▲학부모 교육참여 확대 ▲깨끗한 교육행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황에란 기자